

광주 고교생들, 日제품 불매운동 재개

전체 고교 학생회 정기회서 동참 권유·호응 이어져

전남공고·SW마이스터고·서진여고·상일여고 등 합류

여름방학이 끝나면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재개될 모양새다.

11일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 학생회 모임인 '고등학교 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2019년 2차 정기회에서 각 학교가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안건이 공식 제안됐다.

이날 정기회는 급식 영양기준과 식기류 위생관리 개선, 세월호 추모행사 사업 운영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갑작스런 제안에도 현장에

모인 학생 의원들은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광덕고 전 학생회장이자 현 고교학생회 부의장인 유시우 학생(3학년)은 소속 학교가 지난달 17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광주 전체 학교의 동참을 호소했다.

학생회회 의장인 윤남고 이민정 학생(3학년)은 "현재 전남공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서진여고, 상일여고 등 여러 학교 학생회에서 개학 후 불매운동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열

어 논의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롭고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는 나의 작은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참대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광주 광덕고는 지난달 17일 일본제품 불매운동 선언식과 함께 일본학용품과 물품 버리기 행동을 진행했으며, 광주일고 학생들도 같은달 23일 방학식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우리고

등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하고 24일부터 1박2일 동안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장단도 지난 5일 "모든 특성화·마이스터고는 학생실용실습 기자재, 비품, 재료에 일본제품을 사용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 고교학생회회는 10일 오전 광주 살디자이언트 5층 발라라홀에서 세월호 추모행사인 '나비가 된 당신들을 기억하며'를 개최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도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매체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일부 가짜뉴스로 인해 왜곡된 사실 등을 전달했다. **조인호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태국인 항소 기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4명을 쳐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태국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태국 국적 A(36) 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를 내 1명 사망·3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임발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10분께 신안군 자은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행인 4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물놀이 사고 8월 집중...

67%가 응급·사망환자

연중 8월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았다. 10명 중 7명 가량이 수 분 내에 처치가 필요하거나 사망 징후가 있는 환자였다.

소방청이 11일 내놓은 익수환자 구급활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273명이 물에 빠져 구조된 후 119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8월 들어서만 20명 이송했다. 하루 평균 2.8명 이송한 셈인데, 이송 환자가 가장 많았던 7월(47명·일평균 1.5명)보다 1.3명 많다.

2017~2018년 2년간 물놀이 사고로 병원 이송된 환자는 총 940명(2017년 445명, 2018년 495명)이었다.

월별로는 2년 연속 8월에 이송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 2017년 85명(19.1%), 2018년 77명(15.6%)이다.

여름철인 6~9월 이송환자의 증감도를 보면 전체의 60.0%가 호흡 정지 등으로 수 분 이내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로 분류됐다. 명백한 사망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7.4%였다.

수 시간 이내 처치가 필요한 '준응급 환자'는 15.5%, 응급과 준응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환자'는 16.4%로 각각 집계됐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은 "가장 무겁고 휴가를 많이 떠나는 8월에 물놀이 사고도 가장 잦다"며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수대 피서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韓 청년 56% "불행하다"...학업·취업 스트레스 탓

15~34세 청년 56%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우울한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원의 '청년층 고용·노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월 15~34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불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0%,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나타났다. 21.9%는 '중간'이라고 응답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과거(3년 전)와 현재, 미래(3년 후)

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조사(10점 만점)한 결과, 3년 전 행복감의 평균 수치는 4.99점 이었고, 현재는 5.11점, 3년 후의 행복감은 6.13점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에 행복감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취업상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취업자(5.35점), 학생(5.34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직자는 4.43점으로 1점 가량 낮았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9세의 행복감 평균 수치가 5.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34세(5.12점)가 높았다. 본격적인 취업 준비 연령대와 사회 초년생 연령대가 할 수 있는 20~24세(5.04점)와 25~29세(5.02점)

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보수와 진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수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23.7%인데 비해 진보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49.0%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능동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수동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로 능동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33.4%보다 높았다.

이상적·현실적 평가에 있어서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20.3%로 나타났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61.0%로 나타났다.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아울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주의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조사됐다.

이런판결 저런판결

법원, 유방암 환자 진단 의사 과실 인정 형사재판 결정

유방암으로 사망한 70대 여성의 유가족이 주치의의 형사 처벌을 전제로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유가족들은 주치의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족이 사망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의사를 불기소처분했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규)는 A(사망 당시 70·여) 씨의 유가족 B 씨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은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교수) C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8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 보존술을 받았다.

C 씨는 2013년부터 A 씨의 주치의 2개월에 한 번씩 외래진료를 하면서, A 씨로부터 유방에 약간의 열감 및 불편감이 발생한다는 증상을 들었다.

2014년 8월 같은 병원 핵의학과는 A 씨에 대한 유방종양 검사 결과 염증을 동반한 반응 형성과 같은 양성 병변 의심, 재발된 악성종양 의심되는 만큼 BSIG(유방 특징 감마 영상) 또는 MRI를 통한 추적검사'를 추천하는 판독의견을 내놓았다.

같은 달 진단방사선과도 'A 씨에 대한 유방 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을 필요로 함'이라는 취지

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치의 C 씨는 A 씨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약물치료만을 했다.

2015년 5월21일 A 씨의 유방암 재발이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유방암에 대흉근 및 피부, 양쪽 어깨 부위 임파선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2017년 5월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5월 또는 늦어도 같은 해 8월에는 유방암의 재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임상 증상이나 종전의 검사 결과에 대해 면밀히 확인·평가하고, 유방암 재발 여부 감별을 위해 추천된 추가적인 검사인 MRI나 조직검사를 실시, 신속·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방 초음파 및 유방 촬영술 검사의 결과만을 과신한 나머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A 씨의 유방암 재발에 대한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는 "핵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 검사 이후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발견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C 씨는 유방 초음파 검사만 실시했을 뿐 앞선 검사에서 권유하는 MRI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인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표본, 자발치료, 응급 민력어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